

〈麻衣太子〉 研究

서 정 주

<目 次>

- | | |
|----------------------------|---------------|
| I. 序 論 | Ⅲ. 作品의 構造的 分析 |
| Ⅱ. 作品의 源泉과 作品과의 距離 | 1. 構 成 |
| 1. 作品 〈麻衣太子〉의 題材로서의 歷史的 事實 | 2. 人 物 |
| 2. 作品 〈麻衣太子〉의 段落 | 3. 主 題 |
| 3. 作品의 源泉과 作品과의 距離 | Ⅳ. 結 論 |

I. 序 論

春園研究 내지 作品研究에 있어서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수 십편에 달하는 연구는 그의 一般小說에만 치중했을 뿐만 아니라 거의 斷篇的인 연구에 不過했다. 더구나 그의 歷史小說은 별로 研究되고 있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는 未開拓分野에 불과하다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作家의 創作意識과 歷史意識을 解明하는 데는 一般小說보다 歷史小說에서 明白히 찾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筆者는 이미 春園의 歷史小說에 對하여 一次的으로 發表한 바 있다.¹⁾

그러므로 本稿는 發表한 一聯의 繼續作業으로 本 研究를 試圖하려고 하는 것이다.

어떤 歷史小說이든 歷史的 事實을 作品 속에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다. 歷史的 事件과 人物을 素材로 하여 現在를 明示하고 이를 위해 作家의 藝術的 意識이 앞서야 하며 文學의 現代的인 意義마저 주어져야 함은 周知의 事實이다.

歷史는 증거에 근거를 둔다. 그러므로 歷史小說이란 증거에다 作家의 상상력을 더하거나, 또는 作家의 상상력을 뺀 것에 근거를 둔다. 그러므로 小

1) 春園의 歷史小說 研究, 1976. 春園의 〈사랑의 東明王〉 研究, 1978.

說家の 能力에 따라서 功의 效果를 變換시키는 調度가 달라진 것이다.²⁾

그리고 春園의 歷史小說 7篇³⁾ 中 〈麻衣太子〉를 먼저 擇한 것은, 韓國最初의 長篇 歷史小說이라는 點으로 보아 韓國歷史小說을 研究하는 데에 있어서 意義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이다.

作品 〈麻衣太子〉는 文獻資料는 充分하지 못하다. 그러나 文獻資料가 充分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精밀한 作品分析만 한다면, 春園의 歷史小說 全部를 이해하는 데에 지름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本 研究의 展開方法은 이러한 歷史小說은, 作品의 構造分析을 通하여 作品 속에 反映된, 作品과 文獻資料와의 關係를 中心으로 하여 史實의 受容度와 虛構性을 把握할 수 있으며, 構成과, 登場人物들의 相互關係性과 作品의 主題 等은 多角度로 檢討하여 作者의 歷史解釋과 作者意識을 모색해 볼 作定이다.

II. 作品의 源泉과 作品과의 距離

앞에서도 言及했지만, 春園의 〈麻衣太子〉에 素材를 提供해 줄 수 있는 文獻,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나타난, 新羅末의 亡國의 슬픔을 안고 金剛山에 入山한 麻衣太子에 對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1. 作品 〈麻衣太子〉의 題材로서의 歷史的 事實

三國史記의 史實中 作品 〈麻衣太子〉의 背景 즉, 이야기 줄거리가 될 수 있는 歷史的 事實을 大略 다음과 같이 큰 部分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면 먼저 敬順王篇, 弓裔篇, 甄萱篇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 놓고 敬順王篇의 話根부터 차례로 설명하기로 한다.

(1) 三國史記

1. 敬順王篇

1.1 敬順王의 즉위, 포석정에서 술 잔치를 베풀 때 甄萱가 침입하여 자결케 한 景哀王을 南山 蟹目嶺에 장사.

1.2 甄萱의 침입

① 將軍 有文이 甄萱에게 항복.

2) E.M. Forster: Aspect of the novel. 文藝文庫, 李誠鎬譯.

3) 7篇: 〈麻衣太子〉 1926, 〈端宗哀史〉 1928, 〈李舜臣〉 1931, 〈異次頓의 死〉 1935, 〈世祖大王〉 1940, 〈元曉大師〉 1942, 〈사랑의 東明王〉 1949.

② 전횡이 加恩縣을 포위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물러감.

7.3 將軍 善嫻이 高麗에 투항.

① 太祖 이를 후한 예로 대접, 尙父라 稱함.

7.4 太祖가 전횡과 싸워 승리.

① 高麗 太祖는 50餘騎를 거느리고 京畿에 이르러 만나 뵈기를 청하므로, 王은 백관과 더불어 그를 맞아 임해전에서 잔치 베풀.

② 太祖는 전횡의 군위의 치해를 위는 新羅를 걱정하는 王을 위로.

③ 백성들이 太祖를 보고 〈父母를 만난 것 같다〉고 하며 환영.

7.5 太祖와 敬順王이 만남—백성이 太祖 찬양.

7.6 敬順王 高麗 太祖에게 항복. (遼州界의 30餘郡縣)

① 王은 國土를 남에게 거의 빼앗기고 國勢가 孤弱하게 되자 將臣들과 그 對策으로 고려 太祖에게 항복할 것을 의논.

7.7 麻衣太子의 반대

① 敬順王의 太子 麻衣太子는 〈國家의 存亡은 반드시 天命이 있는 것이니 어찌 천년 사직을 하루 아침에 남에게 줄 수 있겠나?〉 함.

② 王은 侍郎 金封休에게 글을 갖추어 太祖에게 보냄.

③ 王子는 통곡하면서 곧 柝骨山으로 들어 麻衣草食으로 一生을 마침.

7.8 新羅 亡함.

① 王은 신하들과 서울을 떠나 太祖에게 歸附함.

② 太祖는 王을 맞아 위로함.

③ 대궐 동쪽의 가장 좋은 집을 주고 正承公으로 封함.

7.9 新羅人과 高麗人의 피를 섞다.

① 太祖는 장녀 낙랑공주를 敬順王에게 시집보내다.

② 太祖는 王의 조카딸〈백부잡간역렴(迺干億廉)〉과 결혼.

7.10 太祖의 善政

① 敬順王이 太祖에게 歸順한 것은 칭찬할만한 일임. (백성들의 참해를 피하고 그들에게 큰 덕을 베풀었다고 함.)

② 太祖는 妃嬪이 많고 자손이 번성함.

③ 顯宗은 新羅의 外孫으로서 寶位에 오름.

④ 그 후 王統을 계승한 자는 모두 顯宗의 子孫임.⁴⁾

L. 弓裔篇

L.1 弓裔의 族譜

① 新羅人, 姓은 金氏, ② 父親은 第47代 憲安王 誼靖⁵⁾이고 母親은 憲

4) 金富軾著, 金鍾權譯, 三國史記(上) 敬順王篇.

安王의 宮女(이름은 모름).

ㄴ.2 弓裔의 出生過程(단오날 낱고, 깨끗한 빛이 하늘에 맞닿아 십상치
않아 나라에 붙길한 일이 있을까 염려하여)

① 弓裔를 버림.

② 弓裔 애꾸눈이 됨.(·사자가 강보에 쌓인 弓裔를 다락밑으로 던짐.
·젓종이 숨어서 받다가 손가락으로 눈을 찌름.)

ㄴ.3 궁예 길 떠남.

① 世達寺에서 善宗이라 이름하고 종이 됨.

ㄴ.4 궁예는 新羅를 침.

① 궁예는 기훤의 부하 원희, 신훤과 결탁.

② 궁예는 양길에게 신임을 받고 군사를 얻게 됨.

③ 궁예는 진성여왕 8년 新羅의 어지러움을 틈타 溟州로 침입.

ㄴ.5 궁예, 왕이 됨.

① 궁예는 나라를 세워 泰封이라 하고 왕이 됨.

② 궁예는 스스로 미륵불이라 칭하고 아들을 청광보살, 신광보살이라 함

ㄴ.6 궁예의 난폭함.

① 궁예의 부인 康氏는 왕의 정사가 법도에 맞지 않음을 충고하자, 불
에 쇠망망이를 달귀 찢러 죽이고, 그에게서 난 두 아들까지 죽임.

② 궁예는 관료장군, 평민에 이르기까지 무고하게 죽임.

③ 백성들은 궁예의 혹독한 폭정에 견딜 수 없음.

ㄴ.7 太祖가 궁예를 침.

① 太祖에게 장군이 처자와 신하를 죽이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
는 궁예를 칠 것을 간청.

② 太祖는 신하가 임금을 바꾸는 것은 혁명이라 말하는 데 감히 할 수
없는 일이라 하며 거절.

③ 太祖의 부인 柳氏가 仁으로써 不仁을 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간함

④ 太祖가 드디어 궁예를 침.

ㄴ.8 궁예왕의 죽음

① 궁예왕은 太祖가 쳐들어움을 듣고 산속으로 달아남.

② 궁예는 백성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함.⁶⁾

5) 후자는 제48대 景文王 응림의 아들이라고도 함. 上揭書.

弓裔, 新羅人. 姓金氏. 考第四十七憲安王諠嬭. 母憲安王嬪御. 失其姓名. 或云,
四十八景文王膺廉之子.

6) 金富軾著, 金鍾權譯, 三國史記(下) 大洋書籍.

ㄷ. 甄萱篇

ㄷ.1 전훤의 出生

- ① 전훤. 尙州 加恩縣사람. 본래 姓은 李氏인데 뒤에 甄氏라고 하였음
- ② 전훤을 호랑이가 젖먹임.

ㄷ.2 전훤, 裨將이 됨.

- ① 전훤의 체모 기특.
- ② 지기가 남 달리 뛰어남.

ㄷ.3 전훤 스스로 왕이 됨.

- ① 가히 공공연히 왕이라 칭하지 않음.
- ② 전훤 세력 기름.
- ③ 궁예가 자발적으로 전훤의 부하가 됨.

ㄷ.4 전훤 후백제 왕이라 칭함.

- ① 김유신은 唐兵과 연합하여 백제를 쳐 멸망시킴.
- ② 전훤은 完山에 도읍을 정하고 의자왕의 원한을 풀어준다고 함.
- ③ 드디어 後百濟王이라 칭함.
- ④ 관서를 설치하고 관직을 분정하였음.

ㄷ.5 전훤이 新羅 王都 침입.

- ① 포석정에서 연희 배풀던 경애왕 자살.
- ② 전훤은 경애왕의 왕비 어지럽힘.
- ③ 경애왕의 族弟 金傅를 왕으로 세움.
- ④ 고려 장군 金瑬이 전훤을 물리침. 전훤이 항복함.

ㄷ.6 전훤은 많은 아내를 취하여 10여인의 아들을 둠.

- ① 전훤은 제 4子 金剛이 지략이 많아 가장 사랑함.
- ② 그의 형인 神劍 등은 시기함.

ㄷ.7 神劍이 스스로 대왕이라 칭함.

- ① 신검은 父 전훤을 金山寺에 유폐함.
- ② 동생 金剛을 죽임.

ㄷ.8 전훤은 神武와 英謀가 으뜸.

- ① 전훤은 金山寺에서 도망하여 太祖 보기를 請함.
- ② 太祖 기쁘게 맞아 尙父로 높이고 南宮을 주어 머무르게 함.

ㄷ.9 전훤은 黃山佛舍에서 죽음.

- ① 太祖는 신검에게 官位를 줌.
- ② 그의 두 아우 유배후 죽음.

③ 후백제 망함.(新羅 진성여왕 6년(A. D. 892)~고려 太祖 19년(A. D. 936)

ㄷ. 10 궁예의 不仁함. —新羅에게 버림 받음.

① 견훤의 횡포—아들에게서 화근 조성.”

2. 三國遺事

ㄱ. 金傅大王

ㄱ. 1 전훤이 新羅 침범.(경애왕이 왕건(太祖)에게 구원 청함.)

ㄱ. 2 전훤이 재물 약탈. 왕빈—강간.(경애왕 자결—장사 지냄.)

ㄱ. 3 경순왕 즉위.(王의 族弟)

ㄱ. 4 경순왕 연회 중 나라 망함을 한탄. 太祖가 왕에 대한 동정. 예의 갖추.

ㄱ. 5 백성들 太祖 찬양

ㄱ. 6 경순왕이 新羅를 太祖에게 넘겨줌.

ㄱ. 7 麻衣太子 적극적인 反對.(王子 금강산 입산)

ㄱ. 8 太祖의 딸 딸 낙랑공주를 왕에게 시집보내다.

ㄱ. 9 고려 太祖 新羅人과 결혼

ㄱ. 10 新羅王의 태생(朴, 昔氏—卵生, 金氏— 하늘로부터 금궤에 넣어 탄강.)

ㄱ. 11 太祖의 善政

ㄱ. 12 경애왕의 방탕

ㄱ. 13 경순왕의 귀순 찬양.(오·월의 땅을 宋나라에 바친 소자침을 충신)

ㄱ. 14 太祖의 비빈이 많아서 자손이 번창.(新羅의 외손 현종 뒤로는 大統을 이은 이가 다 그의 자손임.)

ㄴ. 後百濟 甄董

ㄴ. 1 전훤의 출생

① 尙州 加恩縣人, 本姓 李氏인데 후에 甄氏.

② 출생동기—지렁이 아들.

ㄴ. 2 전훤 왕이 됨.

① 세 아들이 반역하므로 太祖에게 투항.

② 아들 금강이 즉위(고려 군사와 회전하다가 궤하여 나라가 망함)

ㄴ. 3 전훤 裨將이 됨.

① 전훤의 체모—웅대, 기이, 지기—특출. 범상치 않음.

7) 金富弼著, 金鍾權譯, 三國史記(下) 大洋書籍, 1975. 9. 15,

- ㄴ.4 견훤 스스로 왕이 됨.
 - ① 공공연히 왕이라 칭하지 않음.
 - ② 스스로 후백제 왕이라 일컬음. 관직을 나누어 설치.
- ㄴ.5 궁예가 良吉의 부하가 됨. (자진하여)
- ㄴ.6 견훤이 신라 왕도 침입.
 - ① 왕비 육보임. (포석정에서 왕과 왕비가 놀 때).
 - ② 왕의 族弟, 金傳를 왕위를 잇게 함.
- ㄴ.7 견훤과 太祖와의 싸움.
 - ① 견훤의 횡포, 노략질 심함.
- ㄴ.8 견훤이 많은 아내로부터 10인의 아들 됨. (금강은 지략이 많으므로 왕위 전할 의사가 있음)
- ㄴ.9 견훤의 죽음. (70세)
 - ① 신검이 견훤을 금산사에 가둠.
 - ② 신검이 금감을 죽임.
- ㄴ.10 太祖가 견훤을 尙父로 높임.
- ㄴ.11 궁예의 不仁함. 一신하에게 버림 받음. 견훤의 횡포. (아들에게 화를 입음.)

2. 作品 〈麻衣太子〉의 段落

1. 가뭄과 국운 한탄.
2. 국상소식 전하다. (경문대왕 29세로)
3. 미륵이의 출생 내력.
4. 궁예는 원수 값을 마음으로 집나감.
5. 궁예는 태백산 入山. 世達寺에 심부름꾼 됨.
6. 궁예는 소허와 백의국신에게 병법 익힘(3년간).
7. 현강대왕 25세, 정강대왕 25세—해마다 국상. (민심소란)
8. 문의 태후(경문대왕)와 상대 위홍의 손에 정권이 돌아남.
9. 신흥이, 정권을 잡아 궁중을 어지럽게 한 위홍에 대해 율분 참지 못함. (신흥과 위홍의 갈등, 삼종간임)
10. 위홍의 강제로 신흥의 북 배다.
11. 위홍과 女王(진성이왕)은 경을 동함. (만공주 24세 처녀때 부터)
12. 신흥의 애인 난희가 위홍을 죽이고 난희는 자결.
13. 소허 도망감. 신흥은 우라부락한 성격. (계령 안 지키는 것을 보고 중들은 무슨 일을 저걸을 사람으로……)
14. 백의 국신은 소허와 신흥의 좋지 못함을 한탄.

8 嶺南語文學 (第9輯)

15. 궁에—세달사 허담스님 것을 비나 기현의 휘하에 들어감.
16. 양길이가 궁에에게 비술과 군사를 줌. 궁에에게 영동 여러 고을 임습—싸움마다 승리.
17. 정화마마, 영화마마 자건. (불상 앞에서)
18. 양길은 윤희를 시켜 궁에를 죽이려고 함. 난영의 극진한 노력과 운영의 희생으로 궁에는 목숨 건짐. (윤희 죽임)
19. 궁에는 솔매(松厓)에서 왕이 됨. (철하의 전반을 움직임.)—국호를 태봉이라 함
- 19'. 궁에의 난폭함. (백성을 많이 죽임.)
20. 궁에왕은 왕건과 만나다. (왕건을 밋음.)
21. 신라는 건원으로 하여금 궁에를 막으려는 정책을 씀.
22. 궁에는 많은 처녀 집족으로 몸이 쇠약. (정사에 뜻이 없다.)
23. 왕건은 궁에의 왕후와의 관계를 궁에에게 들켜자 반란을 일으킴.
24. 궁에는 왕후(난영)와 두 왕자를 죽임.
26. 궁에가 자살.
27. 왕건 고려 태조 되다.
28. 건원은 경애왕의 빈환과 왕건이 경애왕과 한 편이 되는 것을 분하게 여김. (삼국통일의 대업 이루기로 결심).
29. 김충이 계영과 사랑. (탑돌이에서 유럽의 딸과 만남.)
30. 김술이 계영을 좋아함. 김충과 김술 대결. (칼로 김술 봉변 당함.)
31. 경원 신라로 쳐 들어옴. (왕후 희룡—왕의 앞에서), 경애왕을 자결케 함.
32. 경순왕 즉위—경애왕 장사.
- 32'. 김충은 상대 유럽과 함께 나라 바로잡기를 꾀함.
33. 고려왕 왕건 신라에 행차—잔치.
34. 낙랑공주—동궁마마 좋아함. 신라왕은 낙랑공주를 좋아하여 태자에게 시기함.
35. 후백제에서는 선점이 아버지 견훤을 금산사에 가두고 금강을 죽이고 왕이 됨.
36. 경순왕이 신라를 왕건에게 맡기고 만다. (신라 망함)
37. 태자의 반대, 절망에 빠진 김충은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만다.
38. 고려왕은 낙랑공주를 신라왕에게 시집보내다.
39. 낙랑공주 결혼 태자를 찾아감—만남. 백화부인, 태자비, 낙랑공주 중이 됨. 중이 된 낙랑공주와 왕건왕과 만나다.
40. 왕건과 태자 만나 대화. (태자—모든 일이 끝났다..., 왕건—이 모든 슬픔이 다 나로 하여 생김인가...)

위에서 작품 〈麻衣太子〉의 題材로서의 역사적 사실과 작품 〈麻衣太子〉의 단락을 비교 정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도표가 성립된다.

그러면 다음 도표에 나타난 작품의 원천과 작품과의 거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한다.

(3) 作品의 源泉과 作品과의 距離

작 품	歷 史 的 事 實	작 품	歷 史 的 事 實
1		21	1. ㄴ-7
2		22	1. ㄴ-6
3	1. ㄴ-2	23	
4	1. ㄴ-3	24	1. ㄴ-6
5	1. ㄴ-3 종이 됨	26	1. ㄴ-8 자경(공예) 백성에게 잡혀 죽음을 당함.
6		27	삼국사기, 신라본기, 第12, 경순왕
7	삼국사기 卷第二 신라본기 제11	28	삼국사기 列傳 第10, 甄萱
8		29	
9		30	
10		31	1. ㄷ-5
11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11	32	1. ㄱ-1 2. ㄱ-3
12		32'	
13		33	1. ㄱ-5
14		34	
15	1. ㄴ-4	35	1. ㄷ-7
16	1. ㄴ-4 비슬준다는 말 없음.	36	1. ㄱ-6
17		37	1. ㄱ-7 2. ㄱ-7
18		38	1. ㄱ-9
19	1. ㄴ-5	39	
19'	1. ㄴ-6	40	
20		41	

작품의 줄거리를 중심으로 하여 문헌 속에 史實의 수용도와 작가의 虛構性을 밝혀 보겠다.

작품 〈麻衣太子〉의 도표 1, 2 항의 발단부분에서 계속되는 가뭄으로 新羅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워져 국운이 쇠함을 한탄하는 이야기로 시작되어 新羅 제48대 景文大王의 국상소식을 전하고 있는 데, 작자는 이와같이 작품 발단에 허구성을 가미시킨 것은, 新羅의 근황을 암시할 것일 것으로 본다.

그 다음부터 아래서도 提及했지만 앞부분은 전체 자리잡은 중에 이야기 가 등장한다. 3, 4 항에서 궁예의 출생배경과 또 궁예는 자기가 경문왕의 아들 인데도 불구하고 죽이기 위해 버림을 당했다는 데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 집을 떠나는 부분은 史實과 同一하다.

그 다음 5 항에서 궁예가 태백산에 入山하여 世達寺에서 삼부름꾼으로 나

와 있는데, 문헌에는 궁예가 심부름꾼이 아니고 중으로 기록되어 있다.⁸⁾

여기에서 작자가 궁예를 중(僧) 아닌 심부름꾼으로 한 것은 아마 다음 6항에서 소허와 백의국선이라는 허구적인 인물을 등장시켜 궁예와 소허를 대등한 인물로 꾸며서 백의국선으로부터 道를 배우고 兵法를 익히는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백의국선은, 형제같이 지내는 선종과 소허에게 대한 가르침(장생을 도탄 중에서 건져야 한다는)은 작자가 바로 신라인에게 하고 싶은 말을, 백의국선을 통하여 하고자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궁예 이야기는 중간에 끊기고, 다음에는 7항부터 문헌에 기록된 제49대 현강대왕~ 제50대 정강대왕의 젊은 임금의 국상을 치뤄야 하는 일을 민심소란을 불러 일으키게 되며 8항에 영화왕후와 상대 위홍이 정권을 쥐고 있으며, 11항에서 진성여왕과 위홍이 정을 통합으로 여왕은 정사를 돌보지 않고 방탕한 생활에 빠져 있는 동안 자연 간신이 틀리게 되니 민심이 소란하게 된다.

나라가 어지러워서 곧 新羅가 亡함의 원인을 더욱 강하게 묘사하고 있다. 11, 12항에서는 나라를 어지럽히는 위홍을, 정절을 지키려고 하는 신흥의 애인 난희가 죽이는 장면은 작자가 허구적으로 꾸몄으며, 역시 13, 14항의 백의국선에게 가르침을 받던 소허가 도망을 갔고, 도망가지 않은 선종은, 제행을 잘 안 지키고, 그 우락부락한 성격을 보고 중들은 무슨 큰 일을 저질렀을 사람이라고들 했는데, 작가는 여기에서 궁예가 장차 난폭한 자가 되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백의국선의 <合則濟蒼生 分則殺一身>⁹⁾이라고 한 말은, 작자가 백의국선을 등장시켜 1920년대의 우리 민족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 허구적으로 꾸몄을 것으로 본다.

15항에서도 궁예가 기현의 휘하에 들어가는 것은, 作品과 歷史的 事實이 同一하나 허담스님에 대한 말은 文獻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16항에서도 내용이 同質의이나 역시 양길이가 궁예에게 벼슬을 준다는 대목은 文獻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17항의 경화마마와 영화마마가 불상앞에서 자결하는 장면을 꾸민 것은 세상을 시끄럽게 하던 두 왕후의 행동에 대한 인과응보의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18항에서도 역사적 사실에서는 볼 수 없는 사실이며, 19, 20, 21, 22항은 작품 속의 사실과 역사적 사실이 동일하다.

8) 三國史記, 卷第五十, 列傳 第十, 弓裔. <弓裔泣曰…祝髮爲僧, 自號善宗.>

9) 이광수: 이광수 대표작, 三中堂, p. 90.

23항은 문헌에 실려있지 않고 24, 25항은 작품과 동일하며 26항은 작품에서는 궁예가 자결하게 되나 문헌에서는 궁예가 백성에게 잡혀 죽음을 당한다고 기록되었다.¹⁰⁾

27, 28항은 역사적 사실과 동일하고 29, 30 항에서 김충이 탑돌이에서 유림의 딸 계영을 만나 사랑하게 되는 데, 계영을 좋아하는 김술과 김충이 서로 사랑의 대결을 하는 장면은 허구적이다.

31, 32, 33항은 작품과 문헌과의 내용이 일치한다. 38항에서 왕건은 고려와 신라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하여 자기 딸 낙랑공주를 경순왕에게 시집보내게 된다.

그런데 낙랑공주는 경순왕보다 동궁마마를 좋아하게 된다. 이 장면은 34항에서 볼 수 있다.

경순왕이 태자에게 시기하는 장면도 허구적이다.

그리고 왕건이가 삼국사기 경순왕 편에 경순왕의 조카딸(왕의 백부 잡간 역렴(逆干億廉)의 딸)과 결혼했다는 이야기는 작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다음 앞으로 가서 35항에서 후백제에서는 人倫을 거스리는 큰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신검이 아버지 견훤을 금산사에 가두고 동생 금강을 죽이고 백제왕이 되어 스스로 대왕이라 칭하였다.

문헌에서는 견훤이 黃山佛舍에서 죽게 되고, 太祖는 신검에게 官位를 주게 되나 작품에서는 이러한 데 대한 言及은 전혀 없다.

36, 37, 39항에서 경순왕이 新羅를 高麗에 쉽게 넘겨주는 사실은 작품과 문헌이 동일하며, 경순왕의 왕자 김충이 신라의 종묘사직을 하루 아침에 高麗에 바치는 일은 불가하다 하며 적극 반대하였으나, 결국 新羅는 왕건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다.

절망에 빠진 태자는 눈물을 흘리며 왕후의 앞에 절하며 <소자는 가나이다 이제 나라이 망하오니 백성과 산천을 대할 닳이 없어 소자는 가나이다!>¹¹⁾ 하고 왕후, 태자빈, 궁녀 4, 5인과 두점치는 대궐을 빠져나와 모두 庶人의 옷을 입고 栢栗寺에 들어 머리를 깎고 중이되어 산속으로 들어갔다.

문헌에서 왕자는 통곡하면서 皆骨山으로 들어가 麻衣草食으로 一生을 마

10) 김부식지, 김동권역: 三國史記(下), 列傳 第10, 弓裔
 <王聞之 不知所圖 適微服逃入山林. 尋爲斧曠民所害.>

11) 이광수: 上揭書, 三中堂.

12) 一然지, 李丙燾역: 三國遺事, 大洋書籍, 1975. 9. 15.
 <太子哭泣辭王. 徑往皆骨山. 麻衣草食.>

친다는¹²⁾ 句節은, 위와 같이 작가의 허구적인 이야기를 꾸며 놓았다.

문헌에 기록된 太子가 입은 옷을 麻衣라 했는데, 이 麻衣를 일컫기를 나라가 망했으니 상복이라고 풀이하는 수도 있다.

이 작품에서는 庶人の 옷으로 풀이했는데, 이것이 타당한 것 같다.

그것은 관혼상제의 禮가 李朝때부터 시작했었고,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高麗, 新羅 때는 삼베로 상복을 만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38항에서 新羅人과 高麗人의 결혼에 대한 말은, 문헌에는 太祖가 사랑하는 낙랑공주를 경순왕에게 시집보냈다고 되어 있다.

문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太祖의 妃嬪이 많아서 자손이 번성하고 顯宗은 新羅의 外孫으로서 그 뒤 王統을 이은 자는 현종의 자손이라 하였으며 경순왕이 高麗에 귀순한 것을 칭찬했고, 太祖가 善政을 했다는 기록은 작품에서는 전연 언급하지 않았다.

39항에서 낙랑공주가 절로 太祖를 찾아가서 만나는 장면과, 38항에서 이미 밝혔지만, 태자가 경순왕에게 낙랑공주를 주었다. 그러나 낙랑공주는 왕을 싫어하고 태자 김충을 사모하였던 까닭에, 이미 중이 된 태자를 찾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낙랑공주도 중이 되었다.

40항은 역사적 기록이 없고 모두 허구적인 사실 뿐이다.

왕건과 태자가 10년이란 세월이 흘러간 뒤(신라가 망한 후) 비로소 만나게 되었다. 중이 된 낙랑공주와 왕건왕과 만나는 장면(공주를 찾아 왔음), 또 태자와 왕건이 만나서 <원한이 있거든 원한을 풀라>¹³⁾ 하면서 왕건의 참회하는 모습을 보고, 맺든 칼을 도로 꽂고 태자는 울면서 불드는 시녀, 공주, 백화부인, 계명부인을 뿌리치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작가의 虛構의인 想像으로 꾸며진 이야기로서 說話性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같이 작품 <麻衣太子>의 源泉과 작품과의 거리를 즉, 작가적인 창작성을 살펴 본 결과, 준원은 문헌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을 작품 속에 충분히 受容하고 있으면서 構成面에서도 이야기 줄거를 順序를 바꾸어, 과거에서 시작하는 順行的 구성에서 현재로 이야기가 흘러오다가 역행적인 과거로, 또 현재에서 과거로, 또 현재로 되돌아오는 복합적인 구성형식을 취하여 이야기에 역사적 시간에서 벗어나 창조적 시간을 통해 인연성과 새로운 역사 해석을 보여주고 있으며, 역사시간에서 창조의 시간(虛構의 시간)으로 꾸며낸 허구성을 통해, 단순히 결과로서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인과관계를 중시할 수 밖에 없는 소설로서의 세계를 창조해 주

13) 이광수: 상계서, p.373. 三山堂.

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것은 東仁이 춘원의 역사문학에 대해 史話¹⁴⁾로 규정하고 있음은 올바른 태도가 아님을 보게 된다.

한편 춘원의 역사해석이 역사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歷史의 진달 내지 抒情化에 머물고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제검토가 요청되어진다.

그리고 그러한 正史의 態度는 문학을 통한 民族意識의 고취라는 시대적 召命意識의 한 方法을 중시했던 춘원의 작가적 태도의 하나였다는 사실이 지적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Ⅲ. 作品의 構造的 分析

1. 構 成

작품 〈麻衣太子〉는 新羅 경순왕 15년(A. D. 874)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어 高麗 太祖 25년경(A. D. 942)까지 약 68년간에 걸친 이야기로서 泰封(후고구려)의 弓裔와 후백제의 甄萱, 高麗의 王建이 天下의 패권을 둘러싼 三鼎立相을 小說化한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 작품을 弓裔와 甄萱, 王建에 焦點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麻衣太子〉에 집중되고 있음을 看過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결코 춘원의 弱點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 三者가 벌리는 勢力다툼을 보여줌으로써 新羅 末期의 사회적 混亂相과 동시에 亡國의 太子로서의 苦惱를 보다 劇化시키기 위한 세력으로써 評價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실상 東仁은 麻衣太子를 評하는 자리에서 〈麻衣太子〉에 對해서는 그다지 稱 贊이 없었다¹⁵⁾고 前提하고 작품 〈麻衣太子〉의 構成上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바,

첫째, 작품의 대부분을 弓裔의 이야기에 集中되고 〈麻衣太子〉에 對한 部分이 극히 적다는 점이며,

둘째로, 弓裔와 麻衣太子 중 주인공이 不分明하며, 설령 작품의 題口에서 提示한 麻衣太子를 主人公으로 두 人物間에 有機的 關係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作品 〈麻衣太子〉는 한 개의 講談¹⁶⁾이라고 판정했다.

14) 김동인 : 춘원연구 1권 8. 三中堂.

15) 김동인 : 춘원연구 1권 8. p. 538.

16) 김동인 : 상계서 pp. 538~541. 三中堂.

그러나 이러한 東仁의 見解는 一面 妥當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검토하면 작품 〈麻衣太子〉는 東仁의 지적과는 상당히 다른 面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작품의 展開에서 소위 弓裔에 해당하는 部分이, 全體 작품 700 페이지 가운데 400 페이지를 차지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弓裔傳〉은 아니라는 點이다.

周知하다시피 小說이란 단순히 量的인 問題가 아니라 그러한 부분이 전체에 주는 의미가 문제되어야 할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소설 〈麻衣太子〉에서 前半部에서 다루는 문제는 〈弓裔〉에 關한 문제가 아니라 新羅末期의 혼란한 社會相을 提示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그러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소설의 前半部가 상당히 느슨하게 展開되는데 比하여 後半部에 가서는 상당히 急激하고 이야기의 흐름이 또한 긴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상 文章의 長短도 단순히 物理的인 것으로만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情緒的 길이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見解에 依할 것 같으면 前半部의 400 페이지는, 後半部の 300 페이지에 比하여 情緒的 意味에 있어서는 훨씬 적은 부분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麻衣太子와 弓裔間의 主人公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와 두 人物間의 유기성 문제는 앞에서 밝힌 것에서 이미 그 解答은 밝혀졌다고 하겠다.

이를 다시 說明한다면 작품 〈麻衣太子〉에 있어서 前半部에 나오는 主要人物로서의 弓裔는 주인공으로 登場된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신라말기의 社會的 混亂과, 混亂한 社會에서 벌어지는 權力 투쟁을 보여주고 후반부에서 實質的인 주인공 麻衣太子의 비극적 생애에 必然性을 부여하려는 것으로서 小說技法上 展開(complication)에 해당할 뿐 東仁의 지적처럼 〈弓裔傳〉으로서의 孤立된 意味를 지니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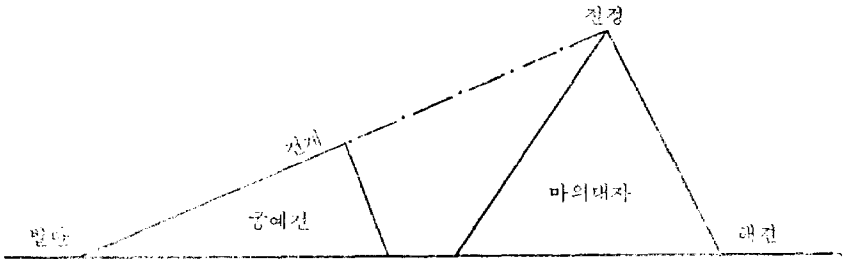
그러므로 두 人物間의 有機性的인 문제도 두 人物間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全體的인 意味로 把握되어야 한다.

그렇게 볼 때 作品 〈麻衣太子〉는 麻衣太子 한 사람을 主人公으로 하여 新羅末期의 혼란한 社會相과 그 結果 亡國의 悲哀로 個人的 榮華를 버리고 入山하여 보다 큰 삶을 위해 俗世를 떠나는, 한 人間의 悲劇的인 삶을 充實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를 보다 具體的으로 설명하기 위해 作品 〈麻衣太子〉의 構成을 圖式으로

提示하면 다음과 같은 圖式이 可能하다.

〈圖 式〉



위의 圖式에서 前半部의 弓裔에 대한 이야기는 발단부분에서 전개에 部位에 이르는 데 까지로 되어 있다.

즉, 신라말기의 正政의 문란과 사회적 혼란, 그러한 와중에서 弓裔를 비롯한 새로운 地方勢力의 登場 등을 다루고 있다.

後半部의 麻衣太子를 中心으로 한 新羅의 滅亡과 麻衣太子의 入山은, 結정부분과 해결부분에서 마무리 짓고 있다.

前半部의 弓裔傳과 後半部의 麻衣太子에 관한 部分이 서로 유기성을 지니고 연결되어, 원인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作品 〈麻衣太子〉의 構成을 傳統의 小說技法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야기의 強音付를 후반부에 두고 급격한 흐름과 높은 tone 으로 當代 權力層에 對한, 批判과 야유로 가득차 있다.

실상 春園의 小說 가운데 풍자적 면모를 갖고 있는 작품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다.(이 點은 主題를 論하는 자리에서 再論될 것임.)

2. 人 物

歷史小說 속에 登場한 人物은 歷史上에 實際로 存在했던 人物이다. 그러나 歷史 속에 實際의 人物을 그대로 同一하게 小說 속에 옮겨 놓는 것은 아니다.

작가는, 적어도 歷史上 실제인물을 작품 속에 受容하되 어느 정도 再構된 人物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될 것이다. 이 點에 대하여는 Maughan의 말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¹⁷⁾

17) Somerset Maughan: Summing up p.57.

歷史文學이면 그 作品 속에 作家가 다루려는 歷史的 事實이 再現¹⁸⁾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은 特殊한 歷史的 個人이 아니라 一定한 歷史性을 지닌 典型¹⁹⁾이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한편으로는 藝術로서의 形象化라는 文學 本然의 任務를 遂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歷史小說의 人物은 作者의 創造의 機能을 發揮하여 作家가 말하려는 主題와 附屬되도록 形象化시킨 人物이라야만 한다는 點은 두말할 것도 없다.

〈歷史小說의 歷史的 人物은 時代의 變化와 運動이라는 社會的 背景 속에 있게 되므로 年代記의이고 고립된 史實로 다룰 때, 個別的이고 分離된 知識 밖에는 얻은 것이 없다.

그러나 歷史小說은 選擇된 時代나, 人物이 社會變化的인 背景 속에서, 어떻게 特定지을 수 있으며, 現代人에게 어떻게 問題化 될 수 있는 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게 된다²⁰⁾라는 申東旭교수의 이와 같은 지적을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

作品 〈麻衣太子〉에 登場하는 人物들은 歷史上的 存在하는 實際의 人物 그대로임을 찾아낼 수 있다.

그렇다면, 春園은 왜 그의 歷史小說에서 作中人物을 擇할 때, 歷史上的 人物을 再構된 人物로 바꾸지 않고 實際人物을 그대로 受容했을까 하는 問題에 對해서도 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뒤에 言及하기로 하고, 우선 〈麻衣太子〉에 登場한 人物 中 主人公과 그리고 重要한 역할을 하는 人物들에 對한 性格과 作品 속에서 活動하는 比重을 人物들간에 일어나는 相互間 對立 등을 分析해 보기로 한다.

앞에 構成에서도 說明이 되었지만, 〈麻衣太子〉에 앞부분은 弓裔 이야기로 작품量中 半 이상의 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인공 麻衣太子에 대한 이야기는 뒷부분에서 매우 급격한 템포로 작품을 마무리 짓고 있다.

그런 까닭에 이 작품에 주인공을 麻衣太子보다 弓裔라고 할 수도 있겠다는 지적까지 받아왔던 것이다.²¹⁾

물론 그렇게 보는 見解에는 상당히 타당성을 지니고 있음도 사실이지만, 그러한 評은 이 작품의 缺點을 지적하기 위한 지적으로 남의 작품을 가볍게 처리해 버리는 所致로도 볼 수 있겠다.

18) 金允植: 歷史文學의 方法論의 展開. 現代文學 1963. 4. p.400.

19) 白 鐵: 歷史事實과 現代作品, 自由文學, 1963. 4. p.183.

20) 申東旭: 한국현대문학론. 博英社, p.111.

21) 金동인: 春園研究 全집 8. 三中堂.

그러나 弓裔는 構成上 혼란기의 한 歷史的 人物의 구실을 다하기 위한 方便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일 것이며, 결국 新羅의 亡함을 가져오는 歷史的 原因을 充分한 說明으로 事件을 展開시키는 過程이기 때문에 前半部의 量이 많아진 것이지 이 소설전체에 대한 歷史的 事件의 重要함 때문만은 결코 아닐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까닭에 弓裔가 차지하는 소설 자체 내에서의 比重은 크지 않고 弱化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먼저 작품에 등장한 그 人物들의 樣相을 살펴 보겠다.

構成部分에서 이미 論及되었지만 弓裔는 이 작품에서 많은 量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해서 이 소설의 主人公으로 보는 것은 不可하다.

다만 新羅 末期의 사회적 혼란을 설명해 나가기 위해 弓裔 이야기와 麻衣太子에 대한 이야기보다 비중을 많이 차지한 것일 뿐 중요한 人物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 소설의 中心人物은 麻衣太子와 낙랑공주 그리고 계영아기와의 기본적인 관계의 愛情的 문제는 이광수 소설의 모든 소설이 갖고 있는 연애소설의 기본적인 배턴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주인공인 麻衣太子에게 중요한 관심사를 두어야 하겠다.

그러므로 특히 麻衣太子가 보는 현실 속에 사회비판의식에 초점을 두지 않을 수 없다.

작품 〈麻衣太子〉는 이광수 소설 중에서 다른 소설에 비해 풍자성이 강하게 나타나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예문은, 뒤에 論及함)

이러한 경우로 볼 때, 麻衣太子는 마치 헛소리를 지껄이는 정신이상자와 같은 人物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麻衣太子가 사회와 현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눈은(麻衣太子) 정상인의 눈일 것이며, 또한 正義로 볼 수 있고, 그와는 달리 新羅 朝廷의 왕이나 신하, 그리고 당대 人物이 비정상의 사고방식을 가졌으며, 사회와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전연 찾아 볼 수가 없어 그들의 사고와 행동은 不義로 밖에 볼 수 없다.

소설 앞부분은 弓裔를 통해서 新羅時代의 혼란상을 이야기 할려는 하나의 方面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인간상의 문제로 보았을 때 麻衣太子에게 나타나는 인간상은 또 亡國의 悲哀이면서 救國의 어떤 人間像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소설 뒷부분에서 麻衣太子는 나라를 고스란히 高麗에게 바치려는 경순왕에게 〈천년사직을 내쫓은 不可하다〉고 말하다가 할 수 없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금강산에 入山하는 것을, 과연 도피로 보아야 옳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다시 말하면 구국의 인간상이 현실 속에서 계속 머무르지 않고 끝내는 현실을 도피하고 만다.

그러면 이 도피 자체를 단순히 도피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그 新羅의 구국내지 재건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냐,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로 볼 때 소설 마지막 이야기가, 어떤 사람이 어디서, 麻衣太子를 봤더라 하는 식의 설화적인 이야기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고 이야기 마지막 그 자체가 도피가 아닌 구국의 자세로 보기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麻衣太子, 낙랑공주, 제영과의 사이가 和合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나, 불교에 귀의한다는 입장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중요人物 세 사람이 끝내 화합 안함은 단순한 연애소설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망국의 비애 그 자체로 보는 방향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점에 대한 입증은 <麻衣太子>의 후반부에 나오는 풍자적인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 살펴 볼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지금까지 <麻衣太子>를 보아왔던 각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

麻衣太子의 풍자적인 대화에서(독백) 상당히 강한 어떤 현실 비판 모습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태자와 낙랑공주와의 대화에서

<바쁘시다 하시니 이 밤에 어디로 가시나이꼬?> 하고 공주는 고개를 들었다.
<귀신을 만나러 가는 길.> 하고 태자는 남산을 가리키었다.

<귀신이 산 사람보다는 사귀기 좋으니—귀신은 믿을 수도 있나니—그 중에도 특
잘려 죽은 귀신이 가장 의리있고 절개도 높으니—충신, 열사를 귀신 아니고 어디
서 찾아 보리—……귀신도 아니면 내 누구더러 말을 하리? 남산에는 귀신이 많아
밤이면 모여 서울을 바라보고 통곡하나니, 나도 그 자리에 참례하러 가는 길이 바
쁘거니와.>²²⁾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시도 그 당대의 경순왕이나 조정의 간신들이 갖고 있는 역사의식 내지 현실인식이, 현실과 타협적이고, 퇴폐적인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와는 달리 麻衣太子가 지니고 있던 생활양식이나 풍속같은 것은 건강하면서도 구국이란 一念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왕건의, 남의 나라에 대한 침욕은 麻衣太子로 하여금 新羅를 떠나게 하는

22) 이광수 : 이광수 대표작 선집 7. p.324. 三中堂.

하나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한다.

왕건은 新羅를 경순왕으로부터 쉽게 빼앗았지만, 결국 세월이 흐른 후에 가지는 회한은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

삼국통일은 했으나, 왕건은 이미 늙었고 아버지 유훈을 저버렸으며, 은혜 입은 弓裔도 팽개쳤고, 죄없는 백성에게 많은 희생을 안겨 준 그러한 회한은 왕건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新羅가 亡한 10년 뒤 금강산에서 왕건은 사랑하는 딸 낙랑공주를 찾아가다가 우연히 麻衣太子를 만나서 칼을 빼면서 대응하는 麻衣太子에게 하는 말에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다.

〈태자는 마음대로 원한을 풀라! 아무도 태자를 막을 자 없으리라.〉…… 태자는 말없이 손에 들었던 칼을 땅에 던지고 두껍쇠에게 〈가자, 모든 일이 끝났도다!〉 하고 수풀 속으로 들어간다…… 왕(왕건)은 태자의 간 뒤를 이윽히 바라보더니 〈이 모든 슬픔이 다 나로 하여 생김인가?〉 하고 고개를 숙인다.²³⁾

이 소설에서 왕건의 입장은 그리 중요한 의미를 띤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소설의 전체 구조로 봤을 때, 시대적으로 왕건의 등장과 麻衣太子의 등장이 같은 시기였다는 것이다.

이 소설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인물 중 절대자로서의 구실을 하는 인물은 역시 白衣國仙이다.

이 백의국선은 소설 전반부에서 궁예의 스승으로 이미 등장했으므로 麻衣太子가 출현하는 후반부에서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그러나 소설 전반부의 弓裔 이야기는 소설 후반부에 나오는 신라가 말하는 사실의 원인이기 때문에 有機性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백의국선이 궁예에게 한 예언(자식복 없다. 합하라)이나 항상 가르침²⁴⁾에 대한 主訓이 바로 작자 이광수가 일제하에 처해있는 우리 민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조금 단적으로 말한다면, 백의국선은 이광수의 化身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백의국선은 麻衣太子의 스승은 아니고 이미 그 시대 이 두 인물

23) 이광수 : 이광수 대표작 선집 7. 三中堂 pp. 373~374.

24) 이광수 : 이광수 대표작 선집 7. p. 90.

〈만일 큰일을 하려거든 너희 둘이 의로 합하여라.…… 국운이 날로 쇠하여 가니 바야흐로 천하가 사람을 구할 때라. 이 때에 너희들은 모든 사유와 사함을 버리고 창생을 건지려는 어진 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큰 일을 이루라.〉

이 같이 등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圖表로 그리더라도 백의국선이 麻衣太子의 위가 아니더라도 결국 이광수의 모든 소설이 갖고 있는 절대자의 입장에서 주인공보다 높은 위치에서 현실 극복의 방안을 제시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러한 백의국선같은 절대적인 인물이 있음으로써 이광수 소설이 갖고 있는 계몽적인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백의국선은 사상과 현실에 대한 역사의식은 麻衣太子와의 동질적인 의식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麻衣太子가 소설 마지막에 절로 들어간 것을 결국 현실도 피라기 보다는 徬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나라를 빼앗기고 빼앗긴 나라 속에서 麻衣太子가 벼슬을 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것을 거부하고 신라에서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없을 것이며 어디로 떠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가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문제가 앞에 선다.

麻衣太子는 절에 들어가서 한 곳에서 안주한 것은 아니다.

麻衣太子는 적어도 자기 희생, 동시에 새로운 어떤 현실의 자성, 새로운 세계의 창조를 위한 자기 몸을 안일하게 하지 않고 고행으로써 얻을 수 있는 속죄 의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作品〈麻衣太子〉는 1920년대 日帝下 現實과 관련지어 볼 수도 있겠다.

왕건이나 낙랑공주는 일제로, 신라조정 의 간신들은 일제하의 매국노로, 경순왕은 고종으로, 麻衣太子는 우국지사로서 해의 망명길은 떠나 독립운동을 하면서 자기 희생의 댓가로서 조국광복을 염원하는 애국투사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왕건의 회한은 좀더 현실과 밀착시켜 볼 때에 일제가 우리 나라를,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욕을 채우고 난 뒤의 허탈감과 죄의식을 언젠가는 맛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춘원의 작품을 큰 비난의 對象으로 잡고 있는 東仁은 그의 歷史小說에서도 언제나 춘원의 歷史小說과 對比할 수 있는 作品을, 즉 춘원의 歷史意識과 相反되는 歷史意識으로 作品을 展開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하나로, 우선 作品〈麻衣太子〉와 同一한 歷史的인 事實을 素材로 한 〈甄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小說〈甄萱〉은 1938年〈朝光〉誌에 連載한 長篇小說이다. 主人公 甄萱은

後百濟의 創建者로서 敗亡한 百濟를 再建하고자 하는 타고난 氣稟이 있고 公私를 저 았은 사나이의 大望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story로 展開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亡國의 王孫이 지나는 恨스러운과, 王族으로서의 긍지는 우리 민족을 이어온 긍지이기도 하다.²⁵⁾

作品 〈甄萱〉의 構成은, 앞서서도 言及되었지만, 〈麻衣太子〉에서 弓裔 이야기와 新羅末의 歷史的 背景이 이야기 展開의 主部分이 되고 主人公 麻衣太子에 對한 이야기가 末段에 온 構成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甄萱〉에는 主人公 甄萱이 잃어버린 祖國을 再建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新羅末의 歷史的 背景이 어느 한 部分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고, 이야기 중간 중간에 약간 說明이 되어가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춘원의 〈麻衣太子〉와 東仁의 〈甄萱〉 두 作品을 綜合的인 面에서 볼 것 같으면, 춘원은 弓裔의 편에 섰고 東仁은 甄萱의 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춘원은, 甄萱을 간사하게 보았고 弓裔는 우둔하지만만큼 正義가 지나치다고 하였으며, 또 善者의 卷은 만드시 이긴다는 勸善懲惡的인 面에 바탕을 두고 仁義의 重要性을 力說하고 있음에 反하여 東仁은 ‘功없는 智’의 無價値함을 強調하였다.²⁶⁾

3. 主 題

이 小說의 主人公인 麻衣太子는 歷史上의 人物로서 新羅의 마지막 王인 景順왕의 아들 金忠이다.

麻衣太子는 景順왕이 新羅를 高麗에 禪位한 후에 亡國의 悲運을 품고 金剛山에 入山하여 修道僧으로 歸依하게 된다.

春園은 그의 一般小說에서도 대부분 指導者像으로 그려진 high Mimetic Mode의 人間型的인 人物들을 등장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춘원문학에 있어서 作中人物은 항상 지도자상을 창조하려는 意圖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한다면 그의 主人公은 당연히 high Mimetic Mode의 人間型인 것으로 表現하지 않을 수 없음을 충분히 把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點에 對하여 東仁이 춘원문학의 性格을 無視²⁷⁾하고 있다.

25) : 麻衣太子 作品 解說.

26) 姜仁淑: 春園과 東仁의 距離, 現代文學, 1965. 2. p.131.

27) 金東仁: 춘원연구.

〈죄움부터 끝까지 연달아 나오는 모순이 모두 작가가 주인공 성격을 잘못 선택한 데 기인해 있다. 이러한 뜻대없고 定見없는 人物에게 대나무 작대기를 接한 것 같이 超人的며 巨人的인 事상을 머금게 하였으니 어찌 모순이 생기지 않으랴.

그러나, 寅仁은 춘원의 그것이, 民族主義를 作品 속에 反映시키기 위한 하나의 方便이었던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所致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와같은 춘원의 지도상을 창조하려는 의도를 더 具體的으로 설명한다면, 춘원은 자신의 민족주의를 具現하는 하나의 方法으로써 啓蒙主義를 택한 것이요,²⁸⁾ 또한 계몽주의를 實現시키고, 이러한 것을 大衆化시키기 위하여는 작품 속에 主人公을 지도자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春爾은 일찌기 계몽주의라는 말을 들어왔으며, 따라서 祖國의 近代化를 위해 교육과 계몽의 앞장을 선 춘원이 그러한 評價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러한 계몽주의는 그 근거가 그의 민족주의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춘원은 <麻衣太子>에서 理想化된 high Mimetic Mode의 人間型인 지도자상의 주인공을 택하지 않고 왜 現實에 順應하는 順應主義와 現實逃避의인 一面의 행동을 보여주는 新羅末의 王子인 麻衣太子를 등장시켰나 하는 문제다.

그것은, 아마 춘원이 기독교에서 불교로 넘어가는 宗教的 전환을 시사하는 작품 <再生>(1925)을 발표한 그 다음 해에 <麻衣太子>가 執筆된 作品이라는 것을 상기할 때²⁹⁾ 불교적인 人生의 無常을 中心 테마로 설정하기 위한 것일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춘원은 이 소설을 통해 불교적인 無常의 哲學을 제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點에 대하여는 다음 몇가지 제시한 대목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이 살면 얼마를 사요. 인생의 봄날이 걸면 얼마나 기요. 나도 시종과 같이
나이 많아진 뒤에 나라 일만 생각하겠소.>³⁰⁾

<인생이 꿈이라네. 덧없는 꿈이라네. 인생이 꿈이라면은 청춘은 꿈에 꿈을 꿈에
꿈 답 울기 전에 놀고 놀까 하노라.>³¹⁾

그러나 이와같은 것은 지금까지 보아온 見解지만 그것은 단순히 人生無常이라는 側面만으로는 춘원이 <麻衣太子>를 쓸 悲劇의 人物을 선택하게 된 것은 바로 볼 수 없을 것이다.

28) 마의태자 작품 해설. 이광수 : 이광수 대표작 선집

29) 마의태자 해설. /

30) 이광수 : 이광수 대표작 선집 7. p. 54.

31) 이광수 : 이광수 대표작 선집 7. p. 60.

그저, 신라의 歷史를 附演하거나 演出하는 것이 아니고, 작가가 그것을 통하여 1920年代 現實과의 관계를 맺으려 했다는 점에서 하나의 意味를 가지는데 충분하다.

적어도 〈麻衣太子〉를 집필한 그 당시의 現實 속에서 시계적인 苦悶 즉, 일제의 壓制 밑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민족적인 悲哀와 苦悶을 麻衣太子를 통해 日帝下의 우리 민족에게 민족의식을 불러 일으키려는 데 執筆意圖가 있었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것은 歡順王이 新羅를, 고려에 國家禪位하려는 데 대한 不可함을 主張하는 麻衣太子의 말로도 가히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춘원은 麻衣太子의 말을 통하여 韓日合邦의 不可함을 暗示하고 있다고 보겠다.

경순왕이 고려에 신라를 넘겨주는 事實은 몇몇 사람의 親日賣國輩에 의하여 國民의 意思는 아랑곳 없이 國家의 主權을 日帝에 넘겨줌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여기에서 新羅가 亡하는 슬픔은 바로 1920년대 現實 속에서 살고 있던 우리 민족의 슬픔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인공 麻衣太子를 비극적으로 處理하기 위하여 王建의 딸 樂浪公主와의 悲戀을 그려주고 있다.

또 麻衣太子는 樂浪公主만 손잡으면 세속의 영달과 행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음에도 不拘하고, 낙랑공주를 뿌리치고 麻衣를 걸치고 금강산에 入山하여 승려가 되어 종적을 감추어야만 했던가. 그것은 現實을 떠난 內世를 追求하는 麻衣太子의 理想的이고 불교적인 宗教觀의 發露였다고 볼 수 있다.

麻衣太子는 父王의 禪位에 대하여 不可함을 主張했지만,水泡로 돌아가자 敗北主義와 直而하게 되어 強力한 對決意識은 모든 것을 肯定的으로 受容함으로써, 새로운 問題解決을 짓지 못하고 현실도피적인 面이 남게 된다.

이러한 順應主義的 態度는 그의 詩歌³²⁾에서도 보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춘원은 현실적인 상황을 肯定的으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狀況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立場³³⁾을 取하고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춘원은 〈麻衣太子〉를 感傷主義的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것은 물론 素材 自體가 지니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作者는 그러한 비극적인 주인공을 통하여 나라를 잃은 1920년대 민족의 비애를 그려주고

32) 이광수·권집 15. 三中堂.

33) 이광수 : 나의 코메디. 권집 13.

있다.

그리하여 새로운 민족의 指導者가 出現하여 민족의 비극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白衣國仙의 恨嘆은, 滅亡해 가는 管籥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1920년대 한국현실 앞에서 민족에게 더 나아가서는 민족독립운동기에게 부르짖는 춘원의 절규인 것이다.

춘원은 일찌기 <나의 告白>에서 自己作品을 評하여 密包裝된 민족의식이라고 告白한 것처럼³⁴⁾ 그는 민족의식을 밑바탕으로 작품활동을 했다는 점은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

勿論 그의 민족의식이란 투철한 역사적식에서 出發하지 못하고 日帝韓國史를 그대로 受容했다는 문제는 批判의 對象이 되겠지만 日常下에서 新羅의 滅亡을 通하여 1920년대 現實과 관련지어 把握하려고 했다는 점은 높이 評價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IV. 結 論

以上에서 春園의 歷史小說 <麻衣太子>에 대하여 考察해 보았다. 그러면, 지금까지 분석해 본 작품의 소재, 구성, 주제, 인물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작품 소재는 역사적 사실을 작품 속에 充分히 受容하면서도 作家의 창작성을 보여 주어 史實의 受容度와 虛構性과의 距離가 있음을 알 수 있고 둘째, 構成에서 소설 전체 부분에서 소설 전반부는 이야기의 원인이 되고 (신라말의 혼란상) 소설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는 앞부분 원인에 대한 결과로서(신라의 亡함) 앞부분과 뒷부분은 두 개의 이야기가 아니고 서로 因果關係의 결과로서의 有機性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소설 이야기가 順行的인 구성과 逆行的인 構成에서 군데군데 현재로 되돌아오는 구성형식을 취하는 복합구성으로 짜여져, 역사적 시간에서 벗어나 창조적 시간을 통해 새로운 역사해석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그들 주제는 작품이 쓰여지던 당대의 사회현실과, 구국이념과의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네째: 人物面에서는 춘원의 歷史小說에 나오는 주인공들과 같이, 平凡한 人物이 아니고 상류층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작자의 理想을 내세우기 위해 지도자상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광수 소설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주인공의 성격은 적극적이고 強者가 아

34) 余의 作家的 態度, 全集 16. p.195.

니고 밝히고 옳하고 미장한 성격이다.

그러나 현실 비판적 기능을 지니고 있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하여 절대자의 인물을 등장시켜 현실각부의 방만을 제시해 주고 있다. 작품 〈麻衣太子〉는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현실과의 有機的 關係를 맺어준다는 사실은 無視할 수 없다.

춘원의 歷史小說이 正史에 너무나 충실했다는 점은 어떤 面에서는 小說로서의 갖추어야 할 창작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1920년 그 당대의 우리 민족에게 뚜렷한 歷史意識과 民族意識을 불어 넣어주기 위한 소치로 볼 때 이 점 높이 評價하지 않을 수 없다.

韓國의 歷史小說은 1920년대의 歷史的인 특징, 즉 現實逃避的 傾向, 日帝에 對한 抵抗의 傾向 속에서 일부 民族派作家들에 依하여 抗日思想과 民族的 正義感을 고취시키는 중대한 使命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도 意義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또한 작품 〈麻衣太子〉는 춘원의 歷史小說의 最初의 作品일 뿐 아니라, 아울러 韓國最初의 長篇歷史小說이라는 점에서도 우리 文學史上 가치있는 작품으로 지적할 수 있다.